

『鍼灸資生經』의 침구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朴炫局^{1, 2 *} · 金基郁^{1, 2}

A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Chimgujasaenggyeong(鍼灸資生經)』

Park Hyun-guk^{1, 2 *} · Kim Ki-wook^{1, 2}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ujasaenggyeong』 can be summarized into 6 parts such as the following

1. 『Chimgujasaenggyeong』 was written at about 1180-1195 during the Southern Song period. It contains 7 volumes in all. The acupuncture points and their variations in volume 1 were all directly recorded from Wang-yuil(王維一)'s 『Dong-insuhyeolchimudogyeong(銅人驗穴鍼灸圖經)』 and 11 points were added from volumes 99 and 100 of 『Taepyeongseonghyebang(太平聖惠方)』, bringing the total to 365 points,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360 that the people knew.

Volume 2 is the actual collection of these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y Wangjipjung(王執中) and shows his unique views on the basic problem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uch as selection of points[取穴], application of moxas[施灸], aftercare of moxibustion[灸後護理]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ntraindications[鍼灸禁忌].

Volumes 3~7 mostly divide the indications(主治) from 『Dong-insuhyeolchimudogyeong』, 『Taepyeongseonghyebang』, 『Cheon-geumyobang(千金要方)』 by disease into chapters.

2. Of the remaining editions the 'Cheonryeok Guanggeunseodang Inbon(天曆 廣勤書堂 印本)' of the Won dynasty is the first, and the Jeongtong(正統) new edition is a reprint based on the Cheonryeok(天曆) edition, and the Jeongtong edition reprinted in the 9th year of Guanmun(寬文) of Japan has many missing and wrong characters compared to the original copy.

3. The big letters[大字] under the line in the current editions are all postscripts[按語] of Wangjipjung and the 5 verses quoted from other books that do not have their origin listed and have the qualities of rules for treatment in the first chapter of volume 3 『Heoson(虛損)』 were put together by Wang.

4. In the annotations in small print of the current edition of 『Jasaenggyeong』 there are Wisegeol(衛世傑)'s added annotations in addition to Wangjipjung's original ones.

5. Some of the many medical books quoted by the 『Jasaenggyeong』 that are from before the Song dynasty have been lost completely and only can be seen here in this important text.

6. The quotations said to be from ‘Myeongdanggyeong(明堂經)’(or ‘Myeongdang(明堂)’, ‘Myeong(明)’ in 『Jasaenggyeong』 are directly from volume 77 『Chimgyeong(鍼經)』 and volume 100 『Myeongdang』 of 『Taepyeongseonghyebang』 and not another book. The quotes from ‘Myeongdang’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books after the Song dynasty were directly or indirectly copied from 『Jasaenggyeong』

Key Words : Chimgujasaenggyeong(鍼灸資生經), Wangjijung(王執中), Dong-insuhyeolchimgudogyong(銅人脈穴鍼灸圖經), ‘Cheonryeok Guanggeunseodang Inbon(天曆 廣勤書堂 印本)’, Wisegeol(衛世傑), ‘Myeongdanggyeong(明堂經)’

I. 序論

南宋·의 王執中은 1180~1195년 간에 『鍼灸資生經』(이하 『資生經』으로 簡稱함) 7卷을 편찬하였는데, 문헌적인 가치와 임상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침구서로 후세 침구학에 끼친 영향은 실로 北宋 官修 침구경전인 『銅人圖經』(이하 『銅人圖經』으로 簡稱함)을 뛰어 넘는다¹⁾.

권1에 기재된 脈穴과 篇次는 王維一의 『銅人圖經』에서 채록하였고, 권2는 王執中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가 집중된 침구논문집에 해당하며, 권3~7은 『銅人圖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에 수록된 脈穴主治에 관한 내용을 病證에 따라 類篇하였다.

『資生經』의 기본 구성은 本文, 原注, 補注 3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原注는 원서 편자인 王執中의 注文(按語를 포함)이며, 大字注文으로 되어 있다. 補注는 원서의 주문을 밝히거나 혹은 원서의 주문을 반박하는 글로 왕집중 본인의 주문이 아닌 송대 의가

인 衛世杰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²⁾.

그러나 현존하는 『資生經』의 판본에서 보주와 원주는 형식상에서 뚜렷한 구별이 없어, 오늘날 사람들은 이 책의 주문이 모두 왕집중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대부분 오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례와 구성이 복잡하고 전해 내려오는 판본 가운데 착오가 많아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³⁾ 宋代 침구서의 대표적인 醫籍인 『資生經』에 관하여, 새롭게 파악된 유관 자료와 이 책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작자와 성서 연대

* 교신저자 : 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E-mail : parkhg@dongguk.ac.kr

Tel : 054-770-2370

접수일(2008년 10월 20일), 수정일(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1)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9, 628.

2)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共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7. p.72.

3)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鄧良月,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證治通鑒. 膠南. 青島出版社. 199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藤井美保子. 鍼灸醫學典籍大系(第1卷)·總論·銅人脈穴鍼灸圖經解題. 東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53[1978].

『資生經』의 작자인 王執中의 생애에 대한 자료에 관하여 史書에 기재된 것은 볼 수 없다. 이전에는 단지 전해 내려오는 판본인 『資生經』 첫 권에 기재된 「序文」에서 간략한 생애와 사적을 알 수 있다.

王執中은 字가 叔權이고 浙江 瑞安 사람이다. 南宋·乾道 5년(1169)에 進士가 되어 從政郎, 澧州教授, 將作丞 등을 역임하였다. 南宋 의가인 王璆의 『是齋百一選方』에 기재된 것에 의하면 王執中이 澧州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峽洲 교수를 지냈고 임직하는 동안 『既效方』을 편성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澧洲 교수로 지낼 때에 『資生經』을 편성하였다.

『百一選方』에 王執中과 그의 책에 관한 자료 다섯 편이 모두 실려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澧洲王教授 執中”⁴⁾을 인용한 것이고 인용문의 방식이 『既效方』에서 인용한 기타 네 편과 달라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검토해 보면 전해 내려오는 판본 『資生經』 卷7 「癰疥瘡」 권7에 나타나는 王執中의 按語와 완전히 같아 이 조문은 王執中의 『資生經』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는 王氏가 『資生經』, 『既效方』을 편집하고 간행한 연대가 서로 가까웠음을 나타내고 있다. 『資生經』의 王氏 按語 가운데 여러 곳에서 『既效方』을 인용한 정황으로 볼 때 『既效方』의 편집과 간행이 『資生經』보다 약간 빠르다. 王璆와 王執中은 같은 시대 사람이고 거주한 곳도 가까웠기 때문에 王執中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믿을 만하다. 또한 『百一選方』에서 王執中의 『既效方』 「自序」를 인용하였다고 한 것에 의거하면 王執中이 편찬 간행한 것에 『鍼灸經』이 있었고, 『資生經』 「赤白帶」의 王執中 按語에서도 이 책을 언급하였는데 『資生經』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資生經』의 확실한 성서 연대에 관하여 원간본이 이미 없어져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성서 연대를 추단할 수 있다. 王執中의 『資生經』에서 현재 성서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의서 가운데 『陸氏續集驗方』이 가장 늦다. 이 책은 남송의 저명한 시인인 陸遊가 편찬하였고 淳熙7년(1180)에 간행되었다. 『資生經』 권2 「便血」 王執中

의 按語에 이 책의 원문을 인용한 것이 있어⁵⁾(같은 권 「腸風」의 小字注文에서도 이 책을 언급함⁶⁾) 1180년이 『資生經』이 성서된 상한선이다. 또한 1196년에 성서된 것으로 알려진 南宋·王璆의 『百一選方』에서 王執中의 『既效方』을 인용하였고, 아울러 『資生經』에서 王執中의 안어를 인용하였는데 이때에 『資生經』이 이미 성서되어 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資生經』의 성서 연한은 1180~1195년 사이이다.

2. 판본

현재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고찰하면 『資生經』이 중국에서 6차례나 간행되었고, 이밖에 日本, 朝鮮에도 刻本이 있다. 대략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初刊本’

王璆의 『是齋百一選方』에 기재된 것에 의거하면, 『資生經』은 대략 1180~1195년 사이에 처음 간행되었고, 紹定4년(1231) 趙綸의 「서문」에 “王君(執中) 首刊於澧陽”⁷⁾이라 하였다. 이 판본은 일찍이 일실되었다.

2) ‘宋·嘉定 徐氏刻本’

이 판본은 淮南 東路常平茶鹽公事를 지낸 徐正卿이 嘉定13년(1220)에 刻印하였다. 첫 권에 나타나는 徐氏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판각하기 전에 의가인 衛世傑에게 교정 작업을 맡겼다. 전해 내려오는 판본에서 小字補注의 글은 이때에 교정하여 증보시킨 것이다.

3) ‘宋·紹定 趙氏刻本’

이 판본은 澧陽郡丞인 趙綸이 徐氏의 간본에 의거하여 중간한 것이다. 당시 ‘徐刻本’은 보기 드물었고

4)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4.

5)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第3)·便血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82.

6)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第3)·便血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282.

7)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鍼灸資生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906.

趙氏가 우연히 이 책을 얻어 중간하여 널리 전하였다. 南宋·趙希弁의 『郡齋讀書志·附志』에 저록된 『資生經』이 아마 이 판본일 것이다. 趙綸의 「서문」이 『普濟方』과 『四庫全書』에 실려 있다. 이 「서문」에 의하면 ‘宋·嘉定 徐氏刻本’ 이전에 王執中이 澧陽에서 『資生經』을 처음 간행하였으나 이 판본은 趙氏가 새길 때에는 이미 없었다.

4) ‘元·大德 國氏刻本’

宋本 『資生經』은 元대에 이르러 이미 보기가 드물었고 元代 壬辰(1292)년에 이르러 蒲登辰이 維揚에서 善本을 얻어 간행하려고 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나중에 大德丁未年(1307)년에 國先生이 중간하게 하여 10개월에 걸쳐 책을 만들었다. 蒲氏의 「서문」에 의하면 “聞之故者，謂澧學舊有公本，火於淳祐乙巳(1245)，後不復得見”⁸⁾이라 하였다. 이 설에 잘못이 있는데 淳祐己酉(1249)년에 趙希弁이 『郡齋讀書志』를 다시 편찬할 때에도 『資生經』을 저록하였기 때문이다. 蒲氏의 「서문」은 『普濟方』과 일본 寬文 9년(1669)에 翻刻한 ‘正統本’에 실려 있다.

이상 각 본은 이미 없어졌고 현존하는 최초의 간본은 元代 天曆시기 葉氏의 ‘廣勤書堂印本’이다⁹⁾.

5) ‘元·天曆 廣勤書堂印本’

이 판본은 福建 葉日增이 天曆庚午(1330) 여름에 『脈經』을 새기기 전에 판각한 것이다(葉氏가 새긴 『脈經』의 발문에 나타남). 그렇다면 『資生經』은 1329~1330년에 인쇄되었다. 이 판본은 높이가 19.6cm, 폭이 12.4cm이며 12행으로 되어 있고 행마다 24글자로 되어 있다. 黑口, 四周雙邊이다. 권1 첫 행에 “太監王公編”¹⁰⁾이라 제목이 붙어 있어 ‘元·大德本’ 蒲氏의 「서문」과 서로 부합하며 이 판본은 ‘大德本’에 의거하여 翻刻한 것인지 모른다(그러나 이 판본에는 蒲氏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음). 또한 목록 첫

머리에 “廣勤書堂刊”¹¹⁾으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이 판본에는 비교적 많은 版板 흔적과 문장이 빠지고 글자가 손상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늦은 시기의 인쇄본이다. 또한 앞에 붙어 있는 ‘廣勤書堂刊’ 다섯 글자의 風格이 다른 곳과는 부합하지 않고, 全書의 版式과 題名도 葉氏의 廣勤書堂에서 조금 뒤에 중간한 『脈經』과는 전혀 다르다. 이 판본은 1329~1330년 사이에 葉氏의 廣勤書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葉氏가 소장한 옛 판에 의거하여 중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葉氏의 廣勤書堂 일부 판이 余氏의 勤有堂에서 계승된 것을 알았다면 이 판본은 余氏의 勤有堂 옛 판으로 葉氏가 이 판본을 구하여 중간한 것인지도 모른다.

6) ‘明·正統 廣勤書堂 新刊本’

이 판본은 葉景逵가 正統 12년(1447)에 ‘天曆本’에 의거하여 중간한 것이다¹²⁾. 行款과 版式이 ‘天曆本’과 같다. 목록 말미에 “正統十二年孟夏三峰葉景逵謹咨”¹³⁾라 표기되어 있다.

이 판본은 널리 유전되어 ‘日本刻本’과 ‘四庫全書本’ 모두 이 판본에 의거하였다¹⁴⁾. 이밖에 森立之의 『經籍訪古志』에서 의거하였고, 明·弘治 甲子(1504)년 ‘劉氏安正堂刻本’도 ‘正統 新刊本’에 의거하였다.

7) ‘日本 寬文 9年(1669)刊本’

이 판본의 行款은 ‘正統本’과 같고 목록 말미에 明·正統 葉景逵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卷末에 “正統丁卯歲孟子吉日三峰廣勤葉景逵重刊”¹⁵⁾ 두 줄이 있다. 이 판본은 ‘正統本’에 의거하여 중각하였다. 그러나 이 판본은 ‘正統本’에 비해 元·大德 蒲登辰의 「서문」이 있고 또한 매 권의 첫머리에 모두 “重改鍼灸資生經

8)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鍼灸資生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907.

9)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9.

10)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11)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12)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9.

13)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14)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8.

15)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大成”이라 표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과 편차 모두 ‘正統本’과 같아 개편한 곳을 볼 수 없다. 이 판본은 착오와 빠진 곳이 적지 않아 善本이라 하기가 어렵다.

8) 『四庫全書』本

「提要」에서 “舊本題葉氏廣勤堂新刊”¹⁶⁾이라 하였지만 살펴보면 이 판본은 ‘新刊本’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따로 의거한 것이 있었거나 초록할 때에 다른 본을 참고하여 교감하였을 수 있다. 『四庫全書』에 수록된 책은 초록하기 전에 신하들이 각기 교감하고 校語를 달았다. 초록할 때에는 校語에 의거하여 바로 고치고 교어를 삭제하였다(王重民的 『中國善本書提要』 p.25 「春秋分記」條 참조).

이 판본에는 南宋·徐正卿과 趙綸의 「서문」만이 있고 元·大德 蒲登辰의 「序文」은 없다. 그러나 저본에 의하면 北宋·陳宗元, 陳師文 등이 교정할 것을 주청한 의서를 “鍼灸資生經原表”¹⁷⁾라 표시하여 첫 권에 넣고 “欲以官書取重”¹⁸⁾(『四庫全書提要』)하였다. 이 판본은 목록이 없고 원문이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비교적 많으며, 腧穴圖도 ‘正統本’보다 정교하지 못하다. 그러나 ‘天曆本’, ‘正統本’을 고쳐서 빠지거나 잘못된 것을 회복시킨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상술한 것을 종합하면 현존하는 각 본의 『資生經』은 ‘四庫本’을 제외하고 모두 ‘天曆本’ 계통에서 기원하였다. 따라서 『資生經』을 정리하고 연구하는데 ‘天曆本’을 저본으로 삼고 ‘四庫本’을 對校本으로 삼아야 한다¹⁹⁾.

3. 기본 내용

『資生經』의 기본내용은 권1, 권2, 권3~권7 세 방

면을 내포하고 있다.

1) 권1

권1의 本文에서 수혈의 부위, 刺灸法을 기술하였다. 각 편의 편명, 수혈의 배열순서 및 기본내용은 모두 王惟一의 『銅人圖經』에 의거하였다. 본문 뒤에는 다른 의서의 글을 인용하여 보충하거나 注文, 按語 형식으로 『銅人圖經』의 수혈 내용에 대해 고증하였다. 고증에 의거한 주된 문헌은 『聖惠方』 권99, 권100, 『素問』의 王冰注이다. 『聖惠方』에는 나타나지만 『銅人圖經』에 실려 있지 않은 수혈에 대해서는 부록 형식으로 針灸를 상관되는 수혈 뒤에 초록하였다. 針灸에 모두 365혈명을 실었는데 그 중에 『銅人圖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明堂’, ‘眉衝’, ‘當陽’, ‘神聰’, ‘前關’, ‘督俞’, ‘氣海俞’, ‘關元腧’, ‘脊堂’, ‘風市’, ‘膝眼’ 등 11혈이다. 보충한 혈은 모두 『聖惠方』 권99, 권100에 의거하였다. 11혈만 보충하여 수록한 것은 아마 ‘365’라는 周天의 도수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권1 「腧穴篇」에서 수혈의 주치병증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王氏가 孫思邈의 ‘孔穴主對法’의 예를 모방하여 ‘病狀在上, 穴名在下’²⁰⁾의 방식에 따라 수혈의 주치병증을 권3~권7에 각 병증의 편 속에 모았기 때문이다.

2) 권2

권2에는 혈명의 異同, 鍼灸의 定穴, 艾炷의 大小, 壯數의 多少, 灸瘡 처리, 침구금기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을 모아 수록하였다.

3) 권3~권7

권3에서 권7까지는 수혈의 주치를 상술하였다. 이 부분의 내용은 『千金要方』, 『千金翼方』의 일부 침구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수혈에 관한 전문 의서나 전문 편장에서 수혈의 주치내용을 직접 따왔다. 단지 편집형식에 있어서 채용한 것은 ‘以病

16) 裴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卷2)·鍼灸資生經,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907.

17) 王惟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18) 王惟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5.

19)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8.

20) 王惟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考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6.

統穴'이지 '以穴統病'의 방식은 아니다. 즉 『千金要方』 권30 '孔穴主對法'의 체례이다.

4. 기본 구성

『資生經』은 구성상에 있어서 本文, 原注, 補注 3부분으로 되어 있다.

1) 本文

첫째, 이 책의 본문은 모두 송대 이전의 문헌에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권1의 본문은 주로 王惟一의 『銅人圖經』에서 따왔고, 권3에서 권7까지의 본문은 주로 『銅人圖經』, 『聖惠方』의 鍼灸卷, 『千金要方』, 『千金翼方』에서 따왔다.

2) 原注

즉 원서의 편자인 王執中의 注文(按語를 포함하여)이다. 原注의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大字注文이다. 현행본에서 한 칸 아래의 문자는 모두 王執中의 注文이다. 이러한 주문은 王執中이 고증한 문자이거나 전인 혹은 王執中 자신의 경험방, 경험 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이 매우 광범하다. 그중에 권2에 있는 문자는 모두 한 칸 아래에 있는데 이는 王執中의 침구논문집으로 볼 수 있다(그 중에 小字注文은 대부분 補注한 사람이 증보시킨 것이다).

둘째, 小字注文으로 주로 권3~권7에 나타나며 인용문의 출처를 밝혔다.

3) 補注

현행본 『資生經』에 있는 일부 小字注文이나 원서를 발취시킨 注文이거나 혹 원서를 반박한 주문은 분명 王執中 본인의 주문이 아니고 송대 의가인 衛世傑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補注는 대부분 권1, 권2에 나타나고 권3~권7에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한 小字注文은 대부분 原注이다.

4) 목록

현존하는 '元刊本' 첫 권에 목록 두 편이 실려 있다. 목록 상은 권1 수혈 목록이고, 목록 하는 권2~

권7의 목록이다. 이 부분이 王執中의 손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 분명 후인이 補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足厥陰穴인 '蠡溝'의 注에 '交儀'라는 小字別名이 있지만 권1 '蠡溝'穴 아래에 "蠡溝二穴, 亦名交儀"²¹⁾라 주한 것은 補注이지 王氏의 原注는 아니다. 이밖에 목록과 본문이 부합하지 않는 곳도 있다. 권3 본문에 「胞轉」편이 있고, 권5에 「脚膝痛」편이 있지만 목록에서는 상응하는 편명이 빠져있다. 권6의 목록에는 「偏頭痛」이 독립된 편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頭痛」편 속에 귀속시켰다.

본문에서 주석으로 나타난 편명에 현행본 가운데 小字 병증명에 속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권3 「勞瘵」아래에 「傳屍」, 「骨蒸」, 「羸瘦」와 같이 붙어 있다. 일부 편の内容과 편명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데, 권7 「血崩」(崩中漏下 惡露不止)篇 아래에 "中都治惡露不止(血崩에 나타남)"²²⁾로 되어 있다. 여기 「血崩」편 아래에 주석으로 나타난 편명이 「血崩」으로 될 수 없다. 이는 이 원문이 본래 「血崩」편에 속하지 않고 「惡露不止」편에 속하는데 두 편이 합쳐져 한 편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뒤로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현행본 『資生經』의 구성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먼저 宋·嘉定시기 徐正卿이 각인할 때에 사람들에게 補注를 명하여 편차에 있어서 이미 조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이후 여러 차례 중간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를 달고 재편하는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일부 앞뒤가 모순된 곳이 있게 되었다. 지금은 補注와 王氏의 原注는 형식상으로 뚜렷한 구별이 없고 원서의 편차도 일일이 고증하기가 어렵다.

5. 체례

현존하는 침구 의서 가운데 『資生經』의 체례가 가

21)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1)·足厥陰肝經左右二十二穴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15.

22)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7)·血崩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67.

장 복잡하다. 현존본 첫 권에 「凡例」나 「序例」가 실려 있지 않아 이 책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쳤고 이 책의 실용적인 가치를 떨어트렸다. 이 책의 체계를 아래와 같이 고증하여 총결한다.

첫째, 本文은 위에 두고 王氏의 논문(권2)과 按語는 한 칸 아래에 배치하였다.

둘째, 권3~권7에 있는 병증 치료편의 본문은 주로 『千金要方』, 『千金翼方』, 『聖惠方』, 『銅人圖經』에서 따왔다. 그 가운데 『千金方』 수혈주치를 인용한 원문 앞에는 모두 ‘主’자를, 『聖惠方』을 인용한 글 앞에는 ‘療’자를, 『銅人圖經』을 인용한 글 앞에는 ‘治’자를 붙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혈주치 원문의 출처에 따라 구별하였는데, 이는 인용문 출처를 표시하는데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다. 결점은 일단 ‘主’, ‘療’, ‘治’를 초록(혹은 각인)한 것이 뒤섞인다면 인용문 출처도 잘못 표기하게 된다. 원서가 반복하여 傳抄와 重刻을 거듭으로 특히 원서의 첫 권에 「凡例」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착오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의 편차는 또한 아래의 방식으로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하였다.

셋째, 권3~권7에서 『千金要方』, 『千金翼方』, 『聖惠方』, 『銅人圖經』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용한 원서의 첫 번째 수혈주치 원문 아래 小字의 注로 인용한 원서를 간칭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책의 원문을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책을 인용하면 다른 책의 인용문 앞에 大字로 직접 서명을 표시하였다. 서명의 간칭과 全稱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千—『金要方』: 千翼—『千金翼方』: 明—『聖惠方』(『聖惠方』 권99, 권100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明’으로 권99를 표시하고 ‘明下’ 혹은 ‘下’로 권100을 표시함): 銅—『銅人圖經』

넷째, 원서의 수혈주치 조문에 여러 개의 병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문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또한 대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王執中은 서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즉 온전한 주치 원문이 일반적으로 어떤 편에만 나타나고 기타 편에서 상관되는 병증을 발췌하였으면 문장 끝에 온전한 조문이 소재하는 편

명을 주를 달아 밝혔다.

예를 들어 권3 「勞瘵」에는 『銅人圖經』 ‘腎俞’혈의 온전한 주치증인 “腎俞治虛勞羸瘦, 耳聾, 腎虛, 水臌, 久冷, 心腹膨脹, 脊滿引小腹痛, 目視眩暈, 少氣溺血, 小便濁, 出精, 陰疼, 五勞七傷, 虛憊, 腳膝拘急, 足寒如水, 頭重, 身熱振栗, 腰中四肢淫瀦, 洞泄, 食不化, 身腫如水”²³⁾²⁴⁾로 기술되어 있다. 「治夢遺失精」편에는 『銅人圖經』 ‘腎俞’혈의 주치에 대해 “腎俞治溺血, 便濁出精”²⁵⁾으로만 되어 있고 아울러 “『銅』, 見勞瘵”²⁶⁾라 주를 달아 이 혈의 온전한 주치증의 출처를 밝혔다. 이와 같이 상세하면서 간략함은 대량으로 중복되는 문자를 피할 뿐 아니라 수혈주치의 문자가 지리멸렬해지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실용적이지만 傳世本에는 서로 나타낸 注文에서 주한 편명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현존본이 宋人 衛世傑의 개편을 거친 것으로 편명과 편차와 王執中의 원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6. 인용문헌

『資生經』에서 인용한 문헌은 매우 풍부하지만 本文에서 채용한 의서는 주로 『銅人圖經』, 『聖惠方』, 『千金要方』, 『千金翼方』, 『素問』 王冰注 5종이다. 이밖에 原注와 補注에서 방서 내지는 의서가 아닌 책에서 침구 내용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는데, 『難經疏』, 『素問』, 『靈樞經』, 『五臟論』, 『既效方』, 『集效方』, 『蘇沈良方』, 『陸氏續集驗方』, 『普濟本事方』, 『耆域方』, 『單方歌』, 『錄驗方』, 『梅師方』, 『肘後方』, 『海上方』, 『外臺秘要方』 등이다²⁷⁾. 아래에 주로 본문에서 직접 채용한 문헌을 간단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23)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勞瘵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36.

24) 王維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圖經(卷中)·背腋第二行左右凡四十四穴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89.

25)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治夢遺失精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47.

26)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治夢遺失精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47.

27)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資生經略略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57.

1) 『銅人腧穴鍼灸圖經』

『資生經』 권1의 본문에 실린 수혈의 배열순서와 수혈 부위, 자구법 등은 『銅人圖經』에 완전히 의거하였으나 『銅人圖經』의 수혈 주치증은 권3~권7에 각기 모아 넣었다. 말하자면 『銅人圖經』에 있는 수혈의 내용은 「脈氣所發」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資生經』에 수록하였다. 또한 수혈주치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銅人圖經』 원서의 옛 모습에 따라 인용함으로써 당시 『銅人圖經』 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王執中이 초록한 『銅人圖經』 원문에서 보면 일부 내용 및 개별적인 수혈의 배열차서는 세상에 전해진 각종 『銅人圖經』과는 다르다. 그러나 증거가 매우 적고 또한 王執中이 빠뜨려서 생긴 異文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王執中 본인과 補注한 사람 모두 『銅人圖經』 본문에 수록된 주석이나 교감한 것에 대한 다른 본을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확실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할 수도 없다. 王執中이 의거한 『銅人圖經』은南宋 重刻本이다. 그러나 『資生經』에서 의거한 『銅人圖經』은 현존하는 각종 『銅人圖經』 판본보다 빠르다. 그러므로 『銅人圖經』을 교감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2) 『太平聖惠方』

『資生經』에서 인용한 『明堂上經』, 『明堂下經』(『明堂經』 혹은 「明堂」, 「明」이라 통칭함)은 『聖惠方』 권99, 권100의 「鍼灸」卷을 가리키는 것이 두 책 혹은 단독으로 출판한 침구 전문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聖惠方』이 널리 유전된 송대에 단행본으로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었고, 더군다나 위조할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다. 설령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을지라도 『明堂上經』, 『明堂下經』 혹은 『明堂上下經』으로 명명할 수 없고 또한 바로 『明堂經』이라고도 할 수 없다.

『聖惠方』 권99, 권100은 2부의 독립된 책으로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上·下篇의 관계도 없다. 만일 단독으로 간행하려면 각기 단독으로 간행하거나 혹은 승재하였다면 각기 제명을 붙였을 것이다. 이러한 단행본이 정말 돌아다녔고 또한 다른 판

본이 출현하였다면 당시 官, 私 書目에 이렇게 중요하고 널리 유전된 전적을 왜 모두 수록하지 않았으며, 기타 송대 의가들이 또한 알지 못하여 인용하지 않고(『幼幼新書』에서 『聖惠方』 권99, 권100의 내용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는데, 모두 「聖惠」라 하였음) 유독 王執中만 소장하고 있었을까?

송대 사람은 침구서에 대해 특히 종합의서에서의 「鍼灸」편은 대부분 『明堂經』 혹은 『明堂』이라 통칭하였다. 예를 들어 王惟一의 『銅人圖經』은 『明堂經』으로, 唐代 孫思邈의 『千金要方』 「鍼灸」편은 『明堂經』 혹은 『明堂』 등으로 칭하였다. 마찬가지로 『聖惠方』의 「鍼灸」卷인 『鍼經』(『孔穴圖經』), 『明堂』을 송대 사람은 『明堂經』 혹은 『明堂』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의서의 「鍼灸」卷과 다른 것은 『鍼經』, 『明堂』은 하나의 통일된 정체가 아니고, 2편에 실린 수혈에 서로 중복된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다른 서명을 붙여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권99를 인용한 것은 『明堂上經』(혹은 「明上」, 「上」이라 간칭하였음), 권100을 인용한 것은 『明堂下經』(혹은 「明下」, 「下」라 간칭하였음)이라 하였다. 때때로 『聖惠方』 원서에 따라 『鍼經』, 『明堂』(혹은 「灸經」)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王執中이 『聖惠方』 권99 원문을 인용한 것을 「鍼經」이라 하지 않은 이유에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송대에 「鍼經」이라는 이름은 『靈樞經』 전본의 하나가 되어 널리 인용되었는데, 『聖惠方』 권99이 다시 「鍼經」으로 인용된다면 혼동되기가 쉽다. 따라서 『聖惠方』 권100과 함께 『明堂經』으로 통칭되었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上經」과 「下經」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현행본 『資生經』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구별하여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明堂」 혹은 「明」으로 통칭하였다. 이러한 것은 특히 권3~권7에 많이 나타난다.

『黃帝明堂經』이 송대에 이르러 이미 실전되었기 때문에 송대 이후 의서에서 구체적인 서명으로 간주하여 인용한 「明堂」 혹은 「明堂經」은 대부분 『聖惠方』 제99 「鍼經」 혹은 제100권 「明堂」을 가리킨다.

송대 이후의 의가 혹은 이를 『黃帝明堂』 원문으로 보고 침구서에서 대량으로 인용하였지만, 여러 의서

에서 인용한 『明堂』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직접 혹은 간접으로 『資生經』에서 베낀 것이다. 예를 들어 『普濟方』(일부 인용문), 『鍼灸大全』, 『鍼灸聚英』, 『鍼灸集書』 등에 수록된 『明堂』은 모두 『資生經』에서 직접 인용한 것이다. 어떤 의서에서는 심지어 王執中의 注文을 『明堂』 원문으로 오해하여 함께 인용하였는데 주의를 요한다.

3) 『素問』

『資生經』에서 인용한 『素問』은 대부분 권1에 나타나며, 서명을 ‘素問’, ‘素注’, ‘素’, ‘新校正’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수록된 원문은 기본적으로 王冰의 注文과 소량의 宋臣注文이다. 이는 고인이 책을 인용하는 일종의 습관으로 원문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注文과 다른 사람의 注文이 같은 책에서 나왔다면 모두 인용한 서명을 통틀어 표시하여 경문, 주문, 누구의 주인지를 자세히 나누지 않았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현행본 『資生經』에는 『素問』 宋臣의 注文 가운데 『甲乙經』을 인용한 것이 적지 않고, 혹은 大字로 배열되었거나, ‘甲云’, ‘甲’이라고 표시되었지만 그러나 직접 인용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王執中이 『素問』의 注文을 인용할 때에 대부분 편명을 표시하지 않아 같은 혈이 『素問』의 다른 편에 나타날 수 있고, 注文도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에 대조할 때 王氏가 인용한 『素問』 注文의 편차를 주의해서 판별해야 한다.

4) 『千金要方』과 『千金翼方』

『資生經』에서 인용한 『千金要方』은 대부분 ‘千金’ 혹은 ‘千’이라 표시하고 『千金翼方』을 인용한 것은 ‘千翼’이라 하였다. 『千金要方』의 내용을 수록한 것은 대부분 권30 「孔穴主對法」과 기타 권에 산재된 침구방에서 따왔고, 『千金翼方』을 수록한 것은 권26~권28 「鍼灸」편에 있는 鍼灸方에서 인용하였다. 실은 『千金翼方』의 침구방은 대부분 『千金要方』에서 나왔다. 정확한 것은 『千金要方』은 원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고 『千金翼方』의 글은 校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인용문헌 모두 이러한 표준에 맞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점은 王執中이 인용한 『千金要方』에는 차이가 매우 큰 두 가지 판본을 채용하였는데, 즉 宋臣이 교주한 본과 송대 사람의 교주를 거치지 않은 본이다. 그 중에 王執中은 ‘宋校本’ 『千金要方』 권30에서 『甲乙經』에 의거하여 교주한 주문을 인용할 때에 수시로 개편하고 대부분 大字로 배열하여 직접 인용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전해 내려오는 판본 『資生經』 판본의 품질에 차이가 있고 문체가 많기 때문에 이 책의 인용 문헌에 대해 자세한 감별을 요한다.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을 가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인용문헌의 방식도 고찰해야 한다. 이 책에 인용된 문헌을 모두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분석해서 인용된 원서로 교정하여 고쳐야 한다.

7. 학술적 가치와 후세 침구학에 미친 영향

王執中의 침구학술사상이 권2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애석하게도 현행본에는 「鍼灸受病處」, 「鍼灸功效」, 「省文」 3편이 탈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권에서 按語 형식으로 권2의 학술관점을 보충 발휘하였기 때문에 각 권에 기재된 것을 참고하면 비교적 전면적으로 王氏의 학술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1) 腧穴主治 편집방식의 변혁

唐代 孫思邈이 『千金要方』을 편찬할 때에 「孔穴主對法」편을 저작하여 권30에 실었다. 병증을 綱으로 삼아 수혈주치를 분류한 의의는 본초서에서의 ‘治病通用藥’의 의미와 비슷하다. 그러나 孫氏는 편찬체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고 또한 취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黃帝明堂經』에서만 채취하였다.

王執中은 孫氏의 「孔穴主對法」 예를 모방하여 『銅人圖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에 실린 腧穴 주치증을 모두 병증에 따라 배열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어 원문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과 조문을 인용하는 중복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였다. 체례는 물론이고 취재에 있어서도 「孔穴主對法」에 비해 한 수 위이다. 篇末은 대부분 按語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량의 驗

方, 醫案을 붙여 임상실용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다. 이는 『資生經』의 최대 특징이고 이 책이 침구임상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인이다. 아쉬운 점은 王執中의 『資生經』에서 수집한 수혈 주치는 대부분 후인들에게 침구방으로 오인됨으로써 왕집중이 수혈서 편찬에 있어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 침구수혈 전문 의서에서 계승하여 완성시키지 못하여 역사적으로 宋, 明 본초학 저작 체례와 유사한 腧穴學 전문서를 탄생시키지 못하였다.

2) 腧穴 定位

王氏는 수혈의 정위 방면에 있어서 고증 작업을 대량으로 하였다. 특히 복부의 혈이 복부의 중앙선에서 떨어진 거리에 대해 계통적으로 조사하여 판별하였다. 권2에는 복부의 腎經혈에 대해 『銅人圖經』과 『聖惠方』에서 다르게 기재된 것만 열거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았지만, 권1에서는 腹部에 있는 혈의 定位에 대해 『聖惠方』의 定位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복부의 첫 줄에서 넷째 줄에 이르는 혈의 가로 사이 거리를 모두 1寸반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송대 이후 침구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元代 滑伯仁의 『十四經發揮』, 明代 『鍼灸大全』, 『鍼灸聚英』, 『鍼灸大成』 등의 의서에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王執中의 정위법을 채용하였다. 明清시기 鍼灸銅人の 腧穴 표기에도 대부분 이러한 定位法을 채용하였다.

3) 人神禁忌 및 禁穴에 대한 태도

王執中은 권2 「避人神等」 편에서 『千金要方』의 「人神禁忌」에 대한 여러 명목을 열거한 뒤에 “通人達士豈能拘此哉? 若遇急卒暴患, 不拘此法. 許希亦云: 若人病卒暴, 宜急療, 亦不拘此. 故後之醫者亦云: 卒暴之疾, 須速灸療, 一日之間, 止忌一時是也. 『千金』云: 癰疽丁腫, 喉痹, 客忤尤爲急, 凡作湯藥, 不可避凶日, 覺病須臾, 即便便治……夫急難之際, 命在須臾, 必待吉日後治, 已淪於鬼錄矣. 此所以不可拘避忌也, 惟平居治病於未形, 選天德, 月德等日服藥鍼灸可也”²⁸⁾라

28)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2)·避人神等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31.

하였다. ‘人神禁忌’의 기원은 매우 빠르고 唐宋 의서에서 대량으로 기재하고 명목이 번잡하다. 그러나 玉執中이 『資生經』을 편찬할 때에는 옮겨 신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王氏의 선명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고대 침구 수혈서에 기재된 일부 적절치 못하거나 침이나 뜸을 금지한 수혈에 대해 왕집중은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일부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4) 取穴에 ‘受病處’를 중시

王氏는 임상 취혈에 질병의 반응점(이른바 ‘阿是穴’)을 중시하였다. 권2에 「鍼灸受病處」편을 두어 이러한 점을 논하였으나, 애석하게도 현행본에서는 이 편이 전부 탈락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 권에 있는 왕씨의 按語에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술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권4 ‘喘證’ 아래에 있는 왕씨의 안어에서 “凡有喘與哮者, 爲按肺俞, 無不酸疼, 皆爲繆刺肺俞, 令灸而愈……因此與人治哮喘, 只繆肺俞, 不繆他穴, 唯按肺俞不疼酸者, 然後點其它穴云”²⁹⁾이라 하였다. 이밖에 咳嗽가 나타나면 흉중의 혈에 압통이 있고, 腸痛이 있으면 ‘大腸腧’혈에 압통이 있고, 부인의 帶下에 ‘帶脈’혈에 압통이 있는 등 모두 압통이 있는 곳에 침이나 뜸을 놓으면 낫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임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의의가 있다.

王執中은 침과 뜸 가운데 구법에 더욱 기울었다. “人資胃氣以生”³⁰⁾(『資生經』이라는 서명에 이러한 뜻이 깃들어 있음)이라 하여 구법이 脾胃를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王執中은 방약으로 치병하는 것도 중시하였고 또한 능숙하였다. 병에 따라 뜸을 놓아야 하면 뜸을 뜨고 약을 투여해야 할 경우에는 약을 쓰고 뜸이나 약이 마땅하지 않으면 침을 놓았다. 이러한 특징은 왕씨가 부기한 의안에 반영되어 있다.

송대에 관한 『銅人圖經』은 金, 元 사이에 단지 두 차례 간행되었고 또한 모두 坊刻한 것이어서 널리

29)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4)·喘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89.

30)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虛損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34.

유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명대에 이르러 일반 의가들은 접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대 이후 침구서는 대부분 『資生經』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普濟方』 「鍼灸門」에 실린 병증치료에 대한 내용은 주로 『資生經』 권3~권7에서 베낀 것이고, 徐鳳의 『鍼灸大全』 권5 「周身折量法」에서 “謹按『明堂』, 『銅人』, 『資生』, 『甲乙』諸經, 參考訂定孔穴, 集成歌括, 名曰「周身折量法」”³¹⁾이라 하였지만 대조해 보면 이 편은 실제적으로 『資生經』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이다. 『鍼灸集書』 卷上の 침구치료도 『資生經』에서 초록하였고, 『鍼灸聚英』 권1 수혈부위, 刺灸法 등의 문자는 대부분 『資生經』을 직접 베낀 것이고, 수혈의 주치증도 주로 『資生經』에서 집록하였다.

8. 오류를 범한 예

1) 인용문 출처에 대한 오류

卷一 “光明……『明下』云治疔疹不能久立, 與陽輔療病同”³²⁾은 『銅人圖經』에서 베낀 것이다. 卷四 「心喜笑」에서 “水溝(見癲癩, 『銅』同)失笑無時節(『明』)”³³⁾라 하였는데, 「癲癩」편 원문에는 “水溝治失笑無時, 癲癩, 語不識尊卑(『下經』同)”로 되어 있어 이는 “水溝(見癲癩, 『明』同) 治失笑無時節(『銅』)”³⁴⁾으로 되어야 한다. 卷四 「風眩」에서 “後頂(見頭風), 玉枕(見目痛), 頷厭(見頭痛) 療風眩(『千』)”³⁵⁾이라 한 조문은 실제로 『聖惠方』에서 베낀 것이지 『千金要方』은 아니다. 卷七 「瘦瘤」에서 “臈會治項瘦氣溜(『明』)”³⁶⁾라 하였는데, 원서의 체례에 따라 판단하면 이 조문의 원문은 『銅人圖經』에서 나온 것이고, 내용을

조사해 보아도 바로 이 책의 문자이고 注文에 오류가 있다.

注를 단 인용문 출처에 오류가 있는 것 이외에 또한 권5 「膺痛」, 권6 「耳痛」 등과 같은 어떤 편장에는 전체 편에 注에 대한 출처가 없고, 注의 출처가 분산된 경우가 더욱 많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주의 출처가 빠진 경우는 대부분 서로 나타나는 조문에서 많이 보인다.

2) 小字注가 편명과 실체가 부합하지 않는 예

『資生經』은 이미 후인의 개편을 거쳤기 때문에 두 편이 합해져 한 편으로 되었거나 혹은 한 편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본문이 개편된 후에 목록 특히 권3~7의 문헌출처를 상응시켜 바꾸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전서의 앞뒤에 모순이 나타나는 것을 면키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卷三 「勞瘵」에서 “下管治日漸羸瘦(見痲癩)”³⁷⁾이라 한 것은 「腹痛」편에 나타난다. “橫骨治陰器縱伸痛(見淋)”³⁸⁾은 卷三 「陰莖痛」편에 나타난다. “環跳治冷風濕痺(見腰痛)”³⁹⁾은 卷四 「風痺」편에 나타난다.

또한 권3~권7의 小字注에서 ‘見便赤’이라 한 것은 모두 현존본 「小便五色」편에 나타나고, 주에서 ‘見膝攣’이라 한 것은 한 조만 「脚膝痛」편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 모두 「膝痛」편에 나타난다. 현행본 『資生經』에는 이와 같이 편명을 표시하여 참조한 小字注文의 착오가 비교적 많다.

3) 인용문

王執中은 다른 책의 글을 인용할 때에 종종 원문을 개편하고 또한 일부 원문의 뜻과 차이가 상당히 크게 개편하였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은 『甲乙經』을 인용한 글이다.王氏가 『資生經』을 편찬할 때에 『甲乙

31) 徐鳳 著. 黃幼民, 黃龍祥 校注. 鍼灸大全(卷5)·周身折量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530.

32)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1)·足少陽膽經左右三十六穴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16.

33)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4)·心喜笑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p.168-169.

34) 朱櫺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普濟方(卷420)·鍼灸門·心喜笑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1786.

35)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4)·風眩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80.

36)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7)·瘦瘤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59.

37)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勞瘵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37.

38)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陰莖痛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39.

39)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2)·風痺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81.

經』의 원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용한 60여 조의 『甲乙經』 문자는 모두 『素問』 新校正, 『銅人圖經』, 『聖惠方』, 『千金要方』 등에서 옮겨 적었다. 그러나 왕씨가 옮겨 적을 때에 원문을 상당히 개편하였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분석하기로 한다.

『資生經』 “……臍疝繞臍痛, 時止, 天樞主之. 又主氣疝煩嘔(『千』云主氣疝嘔), 面腫責豚(併『甲』—卷三「瘰疬」)”⁴⁰⁾

『千金要方』 “臍中石門天樞氣海主少腹疝氣……『甲乙』云…臍疝繞臍痛, 時止, 石門主之”⁴¹⁾

『資生經』 “『甲』云委陽, 殷門主腰痛得俯不得仰—(卷五「腰痛」)”⁴²⁾

『千金要方』 “天樞主責豚脹疝(『甲乙』云氣疝煩嘔, 面腫, 責豚)”⁴³⁾

『資生經』 “太鍾主瘧多寒少熱 『甲』云 : 瘧悶嘔甚, 熱多寒少, 欲閉戶而處, 寒厥足熱—(卷三「瘧」)”⁴⁴⁾

『千金要方』 “天樞主氣疝嘔”⁴⁵⁾—(瘰疬)

“委陽, 殷門(『甲乙』云腰痛得俯不得仰), 太白, 陰陵泉 行間主腰痛不可俯仰”⁴⁶⁾

『資生經』 “率谷主醉酒風熱發, 不能飲食, 嘔吐(『甲』)—(卷三「不能食」)”⁴⁷⁾

『千金要方』 “率谷主醉酒風熱發, 兩目眩痛(『甲乙』云 : 不能飲食, 煩滿嘔吐)”⁴⁸⁾

“太溪主熱多寒少(『甲乙』云 : 瘧悶嘔甚, 熱多寒少, 欲閉戶而處, 寒厥足熱)”⁴⁹⁾

『資生經』의 注에서 나타나는 『甲乙經』의 문자는 모두 『千金要方』 「孔穴主對法」 권30 宋臣의 주문에서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러나 王執中이 옮겨 적을 때에 원서의 몇몇 조의 문자를 합하여 한 조로 만들거나 원서의 本文, 注文을 전도시키거나, 혹은 A穴 아래의 注文을 B穴 속에 적어 넣는 등 원문의 뜻을 잃어버리고 모두 직접 인용하는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문헌을 처리한 것은 고서를 개찬한 것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銅人圖經』에 기재된 ‘顛顛’, ‘懸顛’, ‘懸厘’의 부위가 각기 ‘顛顛上廉’, ‘顛顛中’, ‘顛顛下廉’에 있는데, 王執中은 ‘顛顛’를 ‘腦空’혈의 別名⁵⁰⁾으로 잘못 여겼기 때문에 『銅人圖經』, 『素問』 王冰注 원문 속의 ‘顛顛’를 모두 ‘腦空’으로 고쳤다. 송대 이후 적지 않은 침구서가 모두 이러한 잘못을 답습하였다.

4) 穴名에 대한 착오

『資生經』에서 혈명에 대한 착오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작자가 초록할 때에 잘못 쓴 글자 혹은 새기는 사람이 잘못 새김으로 어떤 혈이 다른 혈로 잘못되게 된 경우이다. 즉 ‘天溪’가 ‘太溪’로⁵¹⁾, ‘陽谷’이 ‘陽谿’⁵²⁾로, ‘天泉’이 ‘太泉’⁵³⁾으로, ‘魄戶’가 ‘魂門’⁵⁴⁾으로 잘못된 것 등이다. 이러한 착오는 조문에 따라 원서와 대조하지 않으면 거의 발견할 수 없다. 高武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에 대부분 이와

灸·風痺第四.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8.

49)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熱病第五.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31.

50)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1)·偃伏第三行左右十二穴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79.

51)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5)·胸脅痛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05.

52)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5)·腕勞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10.

53)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5)·胸滿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03.

54)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5)·胸滿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04.

40)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癰疽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42.

41)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癰疽第六.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32.

42)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腰痛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21.

43)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心腹第二.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5.

44)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瘧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63.

45)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癰疽第六.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32.

46)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灸·四肢第三.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7.

47)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不能食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60.

48)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卷30)·鍼

같은 착오를 답습하였다. 둘째, 작자가 침구 혈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1혈을 2혈로 잘못 여긴 것이다. 예를 들면 ‘九曲中府’를 ‘九曲’, ‘中府’ 2혈⁵⁵⁾로, ‘巨虛下廉’을 ‘巨虛’, ‘下廉’ 2혈⁵⁶⁾로 잘못 보았다. 또한 『千金要方』 권30에 기재된 같은 혈인 ‘中都’, ‘中鄰’을 두 개의 다른 혈로 오인하여 같은 조문 속에 합편한 것⁵⁷⁾ 등이다.

이상 여러 오류 이외에 『資生經』에서는 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 상당히 많다. 『千金翼方』 권26~28에 기재된 침구방은 대체로 『千金要方』 「鍼灸」卷 이외의 침구방을 모았고 이밖에 당대 초기의 가(주) 甄權의 침방을 약간 증보시켰다. 그러나 王執中은 『資生經』 권3~권7에서 『千金要方』의 鍼灸方을 수록하고, 또한 『千金翼方』의 침구방을 수록하여 불필요한 것을 중복시켰다. 이밖에 중복되어 나타난 것에는 권3~권7의 같은 편에서 완전히 혹은 대체로 같은 주치 조문이 여러 차례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王執中이 채용한 기본 문헌인 『銅人圖經』, 『聖惠方』, 『千金要方』 권30이 내용에 있어서 상당량 중복되기 때문이다.

『資生經』에서 이렇게 중복 출현하는 것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작자의 잘못이나 衍文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자를 대함에 있어서 만일 각 조문 아래 小字注의 편명을 근거할 필요가 있어 기타 편의 상응하는 조문을 참고할 때에는 전술한 체례에 근거하여 조사에 필요한 조문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 이밖에 방면으로 『銅人圖經』, 『聖惠方』,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腧穴方治와 침구방을 일일이 뽑아내어 분류하여 다시 엮어야 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작업이며, 빠지거나 분류에 잘못이 나타나는 것을 면할 수 없는데 이는 王執中도 예외가 아니다.

III. 結論

본문을 통하여 논자는 침구의학사에 있어 南宋의 대표적인 침구 전문서인 『鍼灸資生經』에 관한 침구 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鍼灸資生經』은 대략 南宋 1180~1195년에 成書되었다.全书는 모두 7권이다.

권1에 실린 수혈과 편차는 王惟一의 『銅人圖經』에서 직접 채록하였고, 『太平聖惠方』 권99, 권100에 의거하여 11혈을 증보하여 이전에 알고 있었던 360혈이 아니라 모두 365혈을 실었다.

권2는 王執中の 침구논문집으로 取穴, 施灸, 灸後護理, 鍼灸禁忌 및 침과 약물의 관계 등 침구학의 기본문제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체현하였다.

권3~권7은 주로 『銅人圖經』, 『太平聖惠方』, 『千金要方』에 실린 수혈의 주치내용을 병증에 따라 편을 나누어 만들었다. 여기에는 『千金要方』의 非鍼灸卷과 『千金翼方』 「鍼灸」편에서 鍼灸方도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鍼灸腧穴 전문의서이지 鍼灸治療 전문의서가 아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鍼灸方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2. 전해 내려오는 판본 가운데 ‘元·天曆 廣勤書堂印本’이 최초이고, ‘正統 新刊本’은 ‘天曆本’에 의거하여 重刻한 것이고, 日本 寛文九年에 翻刻한 ‘正統本’은 원본에 비해 脫文과 誤字가 많다. ‘四庫全書本’이 ‘正統本’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계통적으로 대조해 보면 양자 사이에 차이가 현저하다.

‘四庫本’은 ‘天曆本’, ‘正統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자의 脫誤를 보완하여 바로잡은 곳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다. 『普濟方』 「鍼灸」卷은 『資生經』을 채용한 다른 일종의 ‘元刊本’으로 참고가치가 있어 『資生經』을 點校하는 旁校本으로 삼을 수 있다.

3. 현행 판본에서 줄을 바꾸어 한 칸 아래의 大字는 모두 王執中の 按語이고, 권3 첫 편인 「虛損」에 실린 치료원칙의 성질을 면 출처를 밝히지 않은 5조

55)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7)·血塊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66.

56)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5)·腰脚痛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221.

57)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卷3)·瘡疔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142.

의 원문도 王氏가 총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아울러 권2 全文은 王執中の 학술사상을 고찰하는데 주된 근거가 된다.

4. 현행본 『資生經』에서 小字注文에 王執中の 原注가 있을 뿐만 아니라 衛世傑의 補注도 있다. 補注는 대부분 권1과 권2에 나타난다. 이밖에 현행본에는 목록과 本文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고, 標注가 모두 나타나는 篇目の 小字注文도 원서와 부합하지 않아 원서의 편차를 後人이 개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資生經』에서 인용한 대량의 宋代 이전 의서 가운데 일부 의서는 이미 실전되어 佚文만 이 책에 나타나는 진귀한 자료이다. 주요 인용문헌으로 삼은 『太平聖惠方』은 宋代 原刊本에서 채록하였고 아울러 기타 宋本을 참고 하였다. 『銅人圖經』에 수록된 것은 宋刊本에 의거한 것으로 인용한 글은 교감에 있어서 두 책을 가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資生經』에서 인용한 의서 가운데에는 다른 책에 옮긴 간접 인용문이 적지 않고, 또한 王氏의 改編을 거친 것이 많아 원서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자로 고찰하거나 옛 의서를 교감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6. 『資生經』에서 ‘明堂經’(또는 ‘明堂’, ‘明’)이라 칭하여 인용한 글은 『太平聖惠方』 卷77 「鍼經」, 권100 「明堂」에서 직접 인용한 것으로 다른 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송대 이후 침구서에 인용한 ‘明堂’은 『資生經』에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베낀 것이 많다.

4.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点教. 備急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425, 427, 428, 431, 432.
5. 王維一 著. 王宗欣, 黃龍祥 校注. 鍼灸資生經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31, 282, 354, 355, 356, 357.
6. 王維一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89.
7. 王執中 著. 裘沛然 主編. 鍼灸資生經中國醫學大成三編卷10. 長沙. 岳麗書社. 1994. p.79, 115, 116, 131, 134, 136, 137, 139, 142, 147, 148, 152, 156, 158, 159, 160, 162, 163, 165, 167, 180, 181, 182, 189, 203, 204, 205, 210, 217, 221, 235, 241, 259, 266, 267. pp.152-153, 168-169.
8. 朱櫛 撰.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普濟方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11786.
9.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628, 629.

IV. 參考文獻

<단행본>

1. 裘沛然 編審.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藥出版社. 1990. p.1906, 1907.
2. 廖育群 著. 朴炫局, 金基郁, 李丙旭 共譯. 中國科學技術史. 서울. 一中社. 2007. p.72.
3. 徐鳳 著. 黃幼民, 黃龍祥 校注. 鍼灸大全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530.